

아름 아름

신세계병원 소식지

“연탄재 밧로 함부로 차지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씻구절이 떠오르는 계절입니다.
옆에 있는것만으로도 가슴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사람이길 희망합니다.

2008년호

www.newworldhospital.com

한가지 이유

아직도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 집착하는 내 모습이 싫었기 때문이요.

아직도 내가 나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한 집착이 과거에 대한 미련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요.

아직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레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나를 버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에게도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은 새로운 시작이며, 마지막 기회입니다.
남아있는 소중한 시간을 뒤 돌아보지 않고, 뒷걸음질 지지 않으며,
내가 나를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올 때 까지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느님 주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소망병동 전○○환우



신세계병원 소식지

알음알음

- 신세계in, 신세계人
- 4 원장 인사말
- 5 올해의 신세계인
- 6 1년의 자취
- 9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 10 기숙사 탐방
- 11 동호회 소개
- 12 알콜중독과 치료명령제
- How to
- 14 병원 이용 안내
- 16 알콜중독 특화 프로그램
- 17 수련원 생
- 특:Talk
- 18 신세계병원 중국에 가다
- 20 간호사 실습 후기
- 21 직장재향 후기
- 22 자원봉사 후기
- 신세계 Plaza
- 23 원무과 '방선옥' 첫 출근하다
- 24 우리들 이야기 공모전
- 26 환우작품전
- 28 신세계병원 숨은 일꾼들

2008년호

www.newworldhospital.com

발행처 신세계병원 전북 김제시 금산면 읍신리 301-14

전화 063-645-8700 팩스 063-645-8600

발행인 김한주 기획·편집 사회사업팀 디자인·제작 오진기(063-247-2230)

내 가족을 모시고 싶은... 자랑스러운 병원이고 싶습니다

1999년 가을, 1번 국도변, 전주에서 정읍 가는 길목.
감재평야의 시원스런 지평선이 내려다 보이는 이 곳 구성산 자락에
10,000여평 병원 터가 준비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2001년 건축허가 신청 후 4년여의 준비 끝에 2005년 봄, 400여
병상으로 개원한 신세계병원!
이제 벌써 새싹배기 걸음마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받는다든 것을 자랑할 수만은 없는 현실적 아픔! 정신장애,
알콜성 질환 및 치매·중풍! 가족을 입원시키고 병원 문을 나서든
가족들의 머리 뒤쪽지가, 최소한 따갑지는 않게 해드리자며,
참으로 열심히들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내 가족을 모시고 싶은...(근부씨는 식구에게는) 자랑스러운
병원” 되어 보자구요, **즐겁게 채우며! 나가서!** 구호는 금년
신세계인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진료,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
그리고 아직은 시작이지만 연구 분야에서도 싹을 틔우려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맞이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진다고지요.

“아름다운 꿈을 지녀라.
그러하면 때 묻은오늘의 현실이 순화되고 정화될 수 있다.
먼 꿈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그 마음에 끼는 때를 씻어 나가는
것이 곧, 생활이다. 아니, 그것이 오늘을 해쳐 나가는 힘이다.
이것이아말로 나의 싸움이며 기쁨이다...”**...라니나 머리이 율케**

여기 신세계 2년여의 발자취를 담아보았습니다.
겨울날, 화롯불의 군고두마치럼 따스한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한 날! 늘 오늘이었으면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아름다운, 힐찬 날들 되세요, 고맙습니다.

구성산 자락에서 지평선을 바라보며 **원장 김한주**

자연, 인간
그리고 건강이
여기에 있습니다



2007년을 빛낸 당신은 VIP입니다



1월의 신세계인
김미화
물리치료사



1월의 신세계인
임정희
간호사



2월의 신세계인
정진경
총무계



3월의 신세계인
김은진
약제과



3월의 신세계인
유지연
영양사



4월의 신세계인
최소은
책임간호사



5월의 신세계인
박경진
원무과



4월의 신세계인
양은희
간호사



7월의 신세계인
조아라
총무계



7월의 신세계인
허영숙
간호사



8월의 신세계인
김소연
임상병리사



8월의 신세계인
박용진
보통사



9월의 신세계인
박선욱
원무과



8월의 신세계인
고재욱
간호사



10월의 신세계인
김현준
사회복지사



10월의 신세계인
한정훈
보통사



11월의 신세계인
조상연
간호사



11월의 신세계인
이금순
조리원



12월의 신세계인
김부욱
간호사

Event



- 01.03 신세계병원 사무식
- 01.19 이빨다온노인병원 본원 방문 견학(이빨다온)
- 01.20 직원 단합 행사(모악산 문방)
- 01.26 알콜병자를 위한 가족모임



- 02.24 색소폰트리 동호회 초청 음악회



- 03.09 어버그린병원 초청공연
- 03.27 한바음연예예술단 초청공연
- 03.31 요사행동 가족회 참가하는 어르신 생일잔치



- 04.05 식목일 행사
- 04.13 방주잔잔단 공연
- 04.11-14 1차 직원 중국연수
- 04.20 순화장신연강사업(조주신보건의)
- 04.24 찾아가는 라이브 음악회 공연
- 04.28 색소폰-리 연주회
- 04.25-29 2차 직원 중국연수



- 05.08 어버이날 행사
- 05.12 개원 2주년행사
- 05.17 익산노인요양지리협력회 참여
- 05.19 허리마은 공연(김지수)
- 05.23 한바음연예예술단 공연
- 05.26 직원 동호회 결성(풍경파리)



- 06.18-28 미국 일몰 및 악물치료 병원-시설 방문

신세계병원 1년의 자취

자연, 인간 그리고 건강이 여기에 있습니다

Education

- 01.04 정신분열병이란 무엇인가 | 최상철 부장
- 01.11 기분장애의 종류와 치료 | 권석준 정신과과장
- 01.18 알콜 중독 회복의 길 | 김형준 진료부장
- 01.25 뇌경색과 뇌혈관성 질환 | 김광기 신경과과장
- 02.01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 최상철 부장
- 02.08 노인성 치매 | 김광기 신경과과장
- 02.15 병동 내 인성관리 및 정신과적 응급/환자 인권 | 김형준 진료부장
- 02.22 정신의학특이 | 권석준 정신과과장
- 03.15 신입사원교육 - 김한주 원장 외 Staff
- 03.22 합동심리훈련
- 03.29 심폐소생술 | 손완정 가정의학과과장
- 04.10 경제성인역성향을 가진 환자의 치료적 접근 | 김형준 진료부장
- 06.07 당노병, 간질환 - 손완정 가정의학과과장
- 06.14 정신보건사업 연계망 구축 심포지엄(도청) | 김한주 원장
- 06.20 소방교육 '응급상황 시 대피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 오해식 선생(김제시 소방서)
- 06.28 노인인 심리·사회적 특성 및 노인행동 프로그램 사례 | 조광현 정신과과장

원내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

- 07.04 김제경찰서 '꿈을 먹는 철은이' | 김한주 원장
- 07.12 '미국 알콜 치료 선진지 견학 연수' 보고회 | 김형준 진료부장
- 07.18 민주교회 '치매 예방교육' | 조광현 정신과과장
- 07.19 부사별 직원교육(12명)
- 07.26 부사별 직원교육(2명) (장사, 식당(사내))
- 08.02 부사별 직원교육(조주신보건의 행정부서 보호사)
- 08.17 성폭력 상담원 교육 | 김형준 진료부장
- 09.06 외부 초청강의 | 채수원 김제경찰서장
- 09.06 바울교회 '치매' 강의 | 김한주 원장
- 09.15 대원동중학교 호남지회 임종환지회 정신과적 접근 | 김형준 진료부장
- 09.17 신입사원 교육 '자립 내기' 강의 | 김한주 원장 외 9명
- 09.17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강의 '주요 정신장애의 이해' | 김형준 진료부장
- 10.12 군산시 정신보건강제관리 지역사회에서 알콜중독자의 대처방안 | 김형준 진료부장
- 10.13 전북·전남·충남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생 정신의학강의 | 김형준 진료부장
- 10.16 익산시 성도병원 호스피스 교육 '임종환자의 정신과적 접근' | 김형준 진료부장
- 10.19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정신장애인의 위기관리' | 권석준 정신과과장
- 10.19 TBN 교통방송 정신건강 상담 | 김한주 원장
- 10.23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한국문화정책 '명화와 정신분석' | 김형준 진료부장
- 11.01 인권교육 | 김형준 진료부장
- 11.07 원광보건대학 간호학과 특강 | 김형준 진료부장
- 11.15 김제경찰서(세곡지회) 강연 | 김한주 원장
- 11.24 바울교회 '노인성 우울증에 대한 이해' | 김형준 진료부장
- 11.29 성림의 이해와 치료 | 권석준 정신과과장

신세계병원 Staff

영예원장 | 김기영



김기영
대표이사



김한주
원장



김상준
진료부장



권석준
정신과·과장



손완정
가정의학과·과장



조광현
정신과·과장



김해준
가정·과장



이지석
간호·과장



김지연
원무·과장



이광현
사회·과장

나부터, 작은것부터 지금부터

고객만족이란?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이 원하는 때
고객이 원하는 상태로 제공 하는것

따뜻한 말, 부드러운 감동은 사람이
바로 환자라는 이름의 고객임을 잊지 않고
고객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며,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공감의 마음·공감의 미소·칭찬의 용기·칭찬으로
고객의 만족할 때 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고객의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며,
사원들의 복지 향상과 일제강 조적 등
고객의 입장, 눈높이, 사명을 실천하는
CS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내 스터디(SA)팀장으로
이승희, 이영희, 이은, 한은, 조은, 안은, 이은, 윤은, 손은

- 업무
 - ☞ 병원 서비스 품질 관리
 - ☞ 병원 이미지 확립
 - ☞ 병원 직원 간담회 교육
 - ☞ 병원 고객 응대 교육
 - ☞ 병원 의료 품질 및 환자 관리
 - ☞ 직원 간담회 조직 개선
- 병원의 경쟁력을 위한 마케팅 기획
 - ☞ 내부고객(직원) 만족 유도를 통한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
 - ☞ 외부 고객(환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한 환자의 삶의 질 향상
 - ☞ 환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가족이란 뜻의 영어단어
Family의 어원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첫 글자들을 합성한 것이라 합니다.
아무의 사는 방식이 달라진 다해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삶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숙사
탐방

우리들의 집

집이란..

어렸을 적부터 집이란 항상 내 마음속에 따뜻한, 포근한, 좋은 향기 가득한 느낌의 '우리 집'이었다.
처음 신세계병원에 입사했을 때 무엇보다 걱정 되었던 것은 그러한 우리 집을 떠난다는 것이었다.
과연 내가 앞으로 지낼 그곳에는 우리 집 같은 따뜻함과 포근함이 있을까?

처음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마음 편히 쉴 수 없었고, 그럴때마다 부모님께 어련아이처럼 투정만 부러웠다.
그렇게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지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내가 절이든 걸까?

어느순간 나에게 새로운 우리 집 이 자리잡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곳에는 나와 함께 즐거움을 나눌 친구들이 있었고, 슬픔을 함께 나눌 언니들이 있었다.

어려운 일을 함께 헤쳐나갈 새로운 우리 가족이 생긴 것이다.

비록 어머니가 해주는 따뜻한 아침밥은 없지만, 마음을 채워주는 그런 가족이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해본다.

오늘은 퇴근길에 조출하지만 따뜻한 호빵으로 이런 내 마음을 전해야겠다.

기숙사 가족들 언제나 사랑해요.^^ 그리고 항상 행복하고 사랑 가득한 그런 우리들의 집 만들어가요~

문지연_ 물리치료사



동호회
소개

풍경따라기

풍경따라기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여행 동호회입니다.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 여유를 느끼며, 직원의 건강 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2007년 한 해 동안 군산 선유도 여행과 래프팅, 스키 등을 즐기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병원의 전문적인 지지도 소정의 경비를 제외한 많은 부분을 후원받고 있으며

정기적인 소모임을 통하여 계절별 테마여행, 여행지 맛집 찾기 등 내실있는 운영으로

잠깐을 다녀오더라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동호회 회원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갈 곳은 많다.

앞으로 신세계병원 여행 동호회 '풍경따라기'에서

전국 방방곳곳을 누비며 병원식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알콜중독과 치료명령제

얼마 전 일본 아키히토 일왕의 사촌인 도모히토 왕자(61)가 왕실의 급기를 깨고 스스로 알콜중독자였음을 고백하여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가장 부자나라 중 하나인 일본, 그곳에서도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지냈을 왕자이지만 그는 심각한 정신장애 중 하나인 알콜중독을 앓아 대학시절부터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한다. 일본 사회 최고의 존경을 받는 왕족의 이 솔직한 고백은 알콜중독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재활의 용기를 주기 위한 강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왕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낼 일임과 동시에 알콜중독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생각된다.

■ ■ ■

알콜중독은 단순히 본인의 신체적 건강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 실직, 음주운전, 폭행 등과 같이 자신과 타인, 나아가 지역사회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14.4%가 알콜중독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14조 9천억의 돈이 의료비, 교통사고관련 비용 등 알콜에 관련된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알콜중독의 증상을 보면 서서히 술을 마시는 빈도와 양이 증가하면서 건강, 가정, 직장 등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쳐 그 효율성이 떨어질 때 의심해야 하는 데, 즉 가족들과 술로 인한 다툼이 자주 일어나거나 직장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직장 내 적응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일단 알콜중독의 가능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더욱 병세가 진행하면 이런 문제로 인하여 죄책감, 수치감,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이 생기고 이런 감정을 벗어나기 위해 오히려 더 술을 마시거나 음주 사실을 감추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스스로 술을 줄이고자 노력하지만 빈번히 실패하여 술을 조절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알콜중독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 ■

지나친 음주는 간염, 간경화 같은 내과적 질환뿐만 아니라 뇌세포를 파괴하여 손 떨림, 불안, 불면, 환각, 간질 같은 급만증상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기억력 장애와 치매로 진행되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과정에서 환자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고 가정은 파괴되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그럴수록 도덕적 타락에 빠져 더 음주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 ■ ■

하지만 이런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알콜중독 환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부정하고 스스로 치료받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 통계에 의하면 알콜진료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환자의 90%가 '보호자'에 의한 비자발적 입원(강제입원)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일정기간 행동이 통제된 환경에서 지내야 하는 알콜중독 치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런 비자의적 입원은 결국 인신구속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다 보면 치료를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하는 환자들과 퇴원시키지 않으려는 보호자간의 실랑이를 매일 보게 된다.

■ ■ ■

얼마 전 미국의 알콜중독치료 결핵을 위한 연수를 다녀오면서 가장 인상적 있었던 것은 바

로 치료에 대한 법적 명령 프로그램 제도였다. 이는 알콜중독으로 인해 가정폭력, 음주운전 등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면 벌금이나 구속 같은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알콜치료 프로그램을 받도록 법원이 적극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제도이다. 환자에게는 빠른 전과기록을 남기기도 치료를 받게 하여 범죄자의 오명을 씻게 하고 가족에게는 근본적 치료를 통해 가족의 재결합과 평화를 제공하는 제도여서 미국 내 치료시설의 환자 중 70% 이상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받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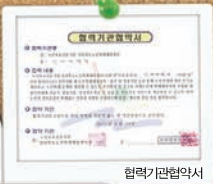
■ ■ ■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같은 범죄를 가족 내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권력의 개입이 미미해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대부분 가족은 인내하거나 이혼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법정 치료명령제의 도입이 매우 시급한 문제로 판단된다. 알콜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합의를 통해 체계적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궁극적으로 가정을 안정시키고 음주관련 범죄를 낮추어 사회적 불안요소를 제거한다면 음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소비비용도 감소시켜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진료부장(정신과전문의) | 김형준





협력기관협력서


신세계병원
400여 병상

- 1층 개방병동 외래, 행정부서
- 2층 호자병동
노인·중풍·치매 전문병동
- 3층 사람병동
정신과 병동
- 4층 소양병동
알콜 전문병동

병원이용안내

외래진료

● 처음 내원 하신 분

- 자잘물 :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 주민등록증
- 초진 시 당일 외래의사 진료를 실시합니다.
- ※ 소개를 통하여 오신 분은 원무과 접수시 미리 말씀해 주세요.

● 진료를 보셨던 분

- 원무과 접수창구에 환자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보험증의 자격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보험증 제시)
- 담당 주치의가 진료를 실시합니다.
- 담당주치의 외래 진료일을 꼭 확인하시고 진료일에 맞추어 내원을 해 주시면 됩니다.

● 응급 및 야간진료

- 당직근무자에게 진료 접수를 한 후에 당직의사가 진료를 실시합니다.
- 자잘물 :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 주민등록증

● 야간진료 접수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5시/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점심시간 오전12시30분~오후1시30분
- 응급 및 야간 365일 24시간(신경진단과, 가정의학과)

입원

● 입원결정

- 응급 및 외래진료 후 담당의사로부터 입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고 입원동의서를 받아 원무과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입원결정 이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해당 병동에 입원하게 됩니다.
- 간호사와 환우가족간의 면담을 실시하고, 원무과에서 입원사약을 하시면 됩니다.

● 입원의 종류와 구비서류

[장소별]

- 동의입원: 보호자의 동의하에 실시되는 입원
- 보호자와 환우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최초 입원 시 서류와 동일), 보호자 도장, 생체물 간지 하는 경우
예)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 자의입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시되는 입원
- 본인양자인 자의입원 신청서를 쓰시면 됩니다.

[가정의학과]

- 입원동의서 및 약사서 (필요시 노인병동 특별약사서)
- 입원 시 준수사항
- 변화는 원무과에 신청 접수하신 후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환우의 안전과 병동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위험물 반입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 직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 예) 칼, 유리병, 캔오피, 맥 등

퇴원

● 퇴원수속

- 원무과 수납 창구에 퇴원신청을 요청하시면 담당 주치의 면담 후 퇴원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퇴원수속 시 해당병동에서 퇴원결정서가 내려 오면 원무과에서 진료비 및 간식비 등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 진료비 정산 후 원무과에서 해당병동에 퇴원수속이 끝났음을 알리고 이후 환우는 병실에서 퇴실 후 약제실에서 약을 수령하여 퇴원하시면 됩니다. (환우의 퇴원 시 갈아 입을 옷이나 신발은 미리 해당병동에 올려 드립니다)
- ※ 환우 입원병동과 진료로 퇴원 예정시간을 미리 상담해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퇴원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용 납부안내

● 정산과

수급권자	비 용
급여 1층 수급권자	무 료
급여 2층 수급권자	월 13,000원~150,000원
보험급여자	법정본인부담금

* 장애인 복자카드 소지자 식대는 보험급여로 처리 됩니다

● 가정의학과(노년층, 치매, 노인성질환)

수급권자	비 용
급여 1층 수급권자	식대 월 61,200원
급여 2층 수급권자	식대+ 본인부담 15% (140,000 ~ 160,000)
보험급여자	법정본인부담금

* 장애인(복자카드) 소지자는 무료입니다 * 간병비, 가거리는 별도로 책정됩니다
* 치매비 중 비급여는 본인부담금입니다 * 노인병동(치매, 노년층)간병비는 병동에 따라 책정됩니다

● 간식비

구 분	비 용	비 고
간식비	약50,000원/월	항, 우유, 전분, 커피, 외래진료 등 입급된 비용만큼 지급
담배	30,000원/월	10개짜/1일 7주(7일*7개)는
소모품	10,000원/월	수건, 화장지, 샴푸, 비누, 치약, 칫솔, 면도기, 화장품, 생리대 포함(※인 속물 별도)

* 치매비 중 비급여는 본인부담금입니다

● 입급계좌

환우의 보호자 및 관계자께서는 아래 계좌에 '환자입금'으로 입금하여주시면 됩니다.
(입금 후 전화요망 063.545.8700)

입급종류	예금주	금융기관명	구 분
간식비	김 대 준	농협	525132-52-447410
진료비	김 기 석	농협	525132-51-024139

제증명 발급

- 본원에서 외래진료나 입원진료를 실시하신 분들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 발급 전 사용 용도에 대해 말씀하시면 기재하시드립니다.

입원 확인서	본원에 입 퇴원한 사실을 증명함
진료 확인서	본원에서 치료한 사실을 증명함(입원/외래)
진단서	의사가 진단한 결과를 적은 증명서
소견서	의사가 환우에 대한 소견을 적은 증명서
정신장애 진단서	장애등급을 위한 진단서
정신지체 진단서	장애등급을 위한 진단서
병사증 진단서	병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진단서
진료기록 열람/사본발급	제출을 필요로 할 때 사용함(보험회사 등)



일광중독은 환자 스스로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뇌의 병 일 뿐 아니라 가족도 함께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가족병입니다. 저희 신세계병원에서는 일광중독으로 고통 받는 환자를 위한 입원 병동과 치료프로그램을 준비하여 환자의 단주와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1 신세계병원 단주·재활 프로그램

Step 1 처음 입원 후 2주간은 해독치료 기간입니다.

Step 2 단주를 위한 전문 병실프로그램(12주)

급실에서 적절히 해독된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일광중독에 대한 병식을 높이고 단주의 동기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알콜치료 프로그램 실시

Step 3 장기입원 및 재활훈련단계

3개월 이상 장기입원 환자를 위한 단계로서 단주를 유지하면서 재활 및 직업 훈련을 통해 퇴원 후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병행 내 작업재활, 외부 취업을 통한 직업재활, 병원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밤 병원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신세계병원에서는 재활훈련단계를 특화프로그램화하여 『주우임인티그레이션』과 『목우촌』과의 연계를 통해 환우 7명이 취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재활 유지 후 퇴원하여 사업장에서 인정받아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환우도 4명이 있습니다.



이처럼 직업재활은 일몰로 위축된 직업기능을 회복시켜 삶에 대한 자인식과 더불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보다 많은 환우 분들이 직업재활에 성공하여 단주를 하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직업재활을 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에 힘써주신
(주)우임인티그레이션, 목우촌 사업장에게 감사드립니다.



농림축산
농림축산

“종합식품 브랜드를 지향하는
농협목우촌”

농협목우촌은 우리끼리 사는 이 땅에서 가꾸어낸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우리 체질에 잘 맞는 식품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우임인티그레이션

믿을 수 있는 제품, 고객에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주)우임인티그레이션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건강
Tip

수면위생

숙면을 취하기 위해 지켜야 할 일반적 원칙을 “수면위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수면 위생 수칙을 살펴보면,

- 잠이 안 와서 시계는 보지 않는다.
- 시계가 신경 쓰이면 아예 눈에 띄지 않게 치운다.
- 허기지거나 배부른 것 모두 피한다.
- 속이 허하면 따뜻한 우유를 한잔 마신다.
- 때분한 책을 읽는 것도 좋다. 단 공포소설이나 로맨스 소설은 피한다.
- 매일 일정량의 운동을 꾸준히 한다. 단, 잠들기 직전에 과격한 운동은 피한다.
- 이불은 가볍게 두꺼운 것 하나보다는 얇은 것 여러 겹이 낫다.
- 오는 두껍게,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폭신한 것도 좋지 않다.
- 침실은 적당히 어둡고 소음이 들리지 않게 한다.
- 전날 잠을 잘 잤든 못 잤든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한다.
- 저녁때 마신 음류수는 소변이 되어 잠을 깨운다.
- 40~42도 정도의 미온탕 목욕은 잠을 돕는다.
- 침실 온도는 적당하게 너무 더워도 잠들기 힘들다.
- 술이나 카페인 음류는 피한다.



불면증 자가 진단표

지난 4주 동안 당신의 수면을 가장 잘 설명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간혹 그렇다. (3)	대개 그렇다. (4)	가히 항상 그렇다. (5)
나는 잠들이 어렵다					
잠드는데 한 시간 이상 걸린다.					
자는 동안 세 차례 이상 깨다.					
깨고 난 후 다시 잠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깨다.					
잠들기 전 숙면을 유지할 수 있을지 초조하다.					
잠들기 위해 숨을 마신다.					
누워 있을 때 불안하거나 다리에 가려운 경련을 느낀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렵다.					
잠을 자고 나서도 여전히 피로가 풀리지 않은 느낌이다.					
잠을 자도 상쾌함을 느끼지 못한다.					
잠자리가 있는 시간은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자지 못하였다.					
잠을 자도 낮 동안에 피로감이 온다.					

※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4점 이상을 받은 경우 불면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힘이 되는 수호천사가 되겠습니다

구석구석 걸어보고, 느껴보고, 만져보고, 누워보고, 말아보고,
산속의 맑은 공기를 마음껏 채우는 귀한 시간이었네
내가 빛이 되기를 소망하는...



간호사 실습 | 송미영

우리 모두는 노란 가운을 입어보고 몸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알하기에 불편하지는 않는지 팔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다소 어수선 했지만 각자의 실습지인 병원을 향해 뚝뚝이 흘려갔다. 스테이션 답을 두고 바라만 보아야 했던 지금까지의 입장과는 달리 스테이션 안에 들어와보니 긴장과 설렘이 느껴졌다. 환자분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약간의 여유를 부려 보기도 했지만 당연히 첫경험의 진통은 있었다.

그동안 충분히 보고 익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눈앞에 펼쳐진 기구들이 익숙하지 않아 조심스러웠고, 일상의 습관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종종 실수를 저지르곤 했다. 하지만 이런 나를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분들로 인해 4개월 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다. 특히 많은 나이가 부담이 되었지만 오히려 장점이 되어서 넉넉함과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다. 연륜이란 이래서 좋은가 싶다. 소망병동, 사랑병동, 효자병동, 한 층 한 층 내려오면서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새로운 병동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위로가 되었다.

최선의 모습으로 실습을 마친 지금은 강한 훈련을 받고난 전사와 같다. 또한 나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활기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몸은 피곤했지만 나를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또다른 나를 발견하게 된 충분한 기회가 되었다. 우리에게 더욱 행복의 고도를 높여 주었던 것은 늘 아쉽게만 한 노다지 같은 점심시간이었다. 구석구석 걸어보고, 느껴보고, 만져보고, 누워보고, 말아보고, 산속의 맑은 공기를 마음껏 채우는 귀한 시간이었다. 내가 빛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병동마다 배를 움켜쥐고 민근 웃고 있어야 했던 환자분들이 한 분 한 분 떠오른다. 대변을 도둑 맞았다고 하소연 하는 할머니, 보기만 하면 나이 많다고 놀리면서도 하이파이브 하지는 분, 가운을 닦고 있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라는 질문에 “제가 풀병이거든요!” 라는 답에 심각한 표정으로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데” 라는 말로 나를 웃게 해주었던 분. 웃고 우는 동안 모든 것을 가진것은 아니지만 난 무척이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실습 중에 부서워서 나이를 잊고 물어버린 적도 있었고, 혈압 체크하는 걸 너무 너무 싫어서 내 속을 까맣게 태운 할머니, 다시 혈압 체크하라 한다면 속이 또 터질라?

실습 마지막 날엔 흥분된 나를 감출 수가 없었다. 약간의 실수는 있었어도 최선을 다한 뒤 후회함이 없는 결과인지도 모른다. 처음 시작의 두려움은 병원 뒤 구름 끝자락으로 사라지고 많은 환자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당당한 수호천사의 모습으로 서있을 나의 미래가 그려진다.

60일...

나의 행복했던 시간들...

어느 날 회진을 하시면 원장님이 무엇을 느꼈냐고 물으셨다. 당시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대답하지 못하고 어물쩍 거렸는데, 지금은 거침없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슴의 따뜻함과 뿌듯함, 그리고 인타까움을 느꼈고...



직장체험 | 전나영

직장체험을 마치고 나와 내 친구가 두 달 동안 활동했던 효자병동 체험을 소개하려고 한다. 직장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좋은 알았지만 단순히 사무실에서 보조를 하는 일만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친구가 병원에서 직장체험을 한다고 했을 때 나도 불현듯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병원에 들어 우리가 일할 곳을 둘러 봤을 때 처음의 기대와 설렘과 달리 두려움이 앞섰다. 이렇게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와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지만 이내 해박하겠다는 의지가 생겼다. 우리 집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대가족이라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모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처음 활동을 시작하던 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 서성거리면서 간병사 여사님들이 시키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부름에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그만큼 우리는 많이 어설플 ‘직장체험’ 생이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먼저 병실을 돌아다니며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했다. 하루 이름 지나니 얼굴과 이름이 이어 일을 하기 훨씬 수월했다. 우리가 이름을 불러 드리고 알아봐 드리니 어르신들도 좋아하는 거 같았다. 내가 그렇듯 누군가가 이름 없이 그냥 부르는 것보다, 다정히 이름을 불러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어르신들에게는 작은 기쁨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렇게 어르신들과 익숙해지다 보니 점차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보이기 시작했다. 물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다. 아침 일찍 병실을 돌며 청소를 하고, 어르신들의 아동을 도와 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며 손뼉을 째 아드리고, 면도를 해드리는 등의 일 뿐이었지만, 날이 지날수록 변하는 우리 모습에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회진을 하시면 원장님이 무엇을 느꼈냐고 물으셨다. 당시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대답하지 못하고 어물쩍 거렸는데, 지금은 거침없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슴의 따뜻함과 뿌듯함, 그리고 인타까움을 느꼈다고, 일을 열심히 하는 나의 모습에, 그리고 좋아하는 어르신들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지만 한때 젊어서 굶고 맛있었을 어른들을 생각하니 인타까움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직장체험...

다른 친구들은 사무실에 앉아 그저 시간을 때울 때, 우리는 맘을 졸였으며 보람을 느꼈으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준 병원에 감사하다. 또 부끄럽고 어설플 모습이었지만 항상 너그러움으로 함께해 주신 간병사 여사님들과 사회복지과 이경원, 김현준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정말 부끄러운 우리들을 진짜 손녀들처럼 애써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쉬워 인사도 제대로 못했지만 정말 감사하다고, 오래 오래 건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내 이웃을...

사람마다 인격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상처와 비밀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인격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비밀과 상처는 거의 대부분 가난하고, 병들고, 못생기고, 도덕적으로 나쁜 모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현두 목사(내장산 교회)

"나는 누구인가"하고 묻던 어린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 묻게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는 사람은 그 이웃을 찾는 내가 누구인가를 또 다시 묻게 되고, 나는 내 이웃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존재로서의 나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신세계 병원을 찾게 된 것도, 1년 반이 넘도록 봉사활동을 하게 만든 것도 나를 묻는데서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웃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모두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성장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됩니다. 그러한 상처들은 인격적인 비밀로 감추어져 있게 됩니다. 사람마다 그러한 비밀을 말하기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마다 인격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상처와 비밀을, 할 수 있는 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그들의 인격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비밀과 상처는 거의 대부분 가난하고, 병들고, 못생기고, 도덕적으로 나쁜 모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약하거나, 병들었거나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뜻한 바를 성취할 수도 없고 행복해 질 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면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내 자신도 나를 포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자신은 나를 포장하지 않으려 하지만 사실은 내 자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내 자신을 화려하게 위장하기 위해 신세계 병원을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겉으로 꾸민 화려하고, 강한 모습에 매료되어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우리 벽장 속에 숨겨져 있는 채 고민하며, 변명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벽장 속에 갇혀 있는 자신, 상처 입은 자신을 그대로 받아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상처입고, 병든 아이를 벽장 속에 가두어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겉보기처럼 화려하고, 건강하고, 장성한 어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꾸밈입니다. 담 뒤에 숨어 고통 받는 아이가 진정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들 품에 품어주십니다. 어리고로 가는 길에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자전인으로서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십자가에 병든 우리 자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심미적인 것에 매료되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인 우리, 병든 우리, 상처 입은 우리, 성장 못한 일그러진 아이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도지러 꽃이 피어날 수 없는 불모지에 두 송이의 백합꽃이 피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멀리서 아름다워 보였던 한 송이는 조화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던 다른 한 송이는 가까이서 보니 무엇인가 생동감이 넘쳤는데 그 곳은 생화였습니다.

오현두목사님은 2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본 병원의 일을 프로그램 중 12단계와 성장공부 프로그램을 해주고 계십니다. 변함없는 자질봉사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2007년 원무과 "박선욱" 신세계병원에 첫 출근하다.



04월 01일 내일이면 첫 출근이다. 새론 근무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04월 01일 힘든 하루였나? 새론병원 생활이 어떻게? 알고 있었던 정년퇴직 일이 일었다. 잘살기 하면 되지 않을까? 육체적으로 힘들었으나 자정간담은 즐거웠다 "표할 수 없으면 끝까지"

04월 01일 정년퇴직은 하루가 가고 선배 보조사실들한테 일찍 배우다

05월 01일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길 다녔고 짧은 짧은 한 달.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주야 근무가 들쭉날쭉한 것이 적응이 쉽지 않다. 동료 보조사실들은 어떻게 적응했는지? 서로 궁금하다. 내일 출근해서 물어보아야겠다.

05월 01일 이번 병원생활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간다. 매일 날은 일이 반복됨. 이따금 환우들에게 잡그리지 않고 웃으면 서얼러워진다. 그것도 고민이다. 나와 내 가족이 불의의사고로 인하여 사망자와 동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불편한 노리를 느끼고 지나간다. 환우들을 다룰 때 나와 내 가족을 때려 칠까? 나와 내 가족을 지킬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든다.

05월 01일 몸이 가렵다. 오열... 이런 고민 때에 왕복근이 있다. 이번 한 달까지 국경에서 생활할 때가 하는 단념인 가? 나도 모르게 마음 속에 담을 쌓고 있는 나를 발견하다.

06월 01일 날씨가 점점 따뜻하다. 바람이 찬바람이 아니라 봄바람이다. 환우들도 힘들고 지친지도 한 달이 된다.

06월 01일 시련병들 보조사실들을 끝내고 원무과로 근무한다. 시련병들 가족들과 지냈던 소중한 시간들 잊지 못할 것 같다.

07월 01일 처음 원무과에서 적응이 되어간다. 내야 말로 업무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인간이 아닌 것 같다. 보조사실들 속이 비어있었던 원무과라고 원무과 박 선욱이 본 원무과가 많은 차이를 느낀다. 바쁜 하루에 애지아직 가는 지 모른다. 매일 이근이다.

07월 01일 경향의 생활이 신세계를 때려치고 한다. 정들지 못할까? 다른 곳에 가서서 신세계면 있었다는 자금침을 가지고 생활할까? 고민한다. 후회해서 신세계로 돌아와서 생활할까? 고민한다. 불행이 있으면...

08월 01일 한 달쯤 보조사실들이 다 돌아왔다. 내야 말로 한 달이 지나고 보조사실들을 키고 병원에 왔다. 많은 것들이 이젠 나와 있다. 일로 잘 수 있을까? 내야 말로 일할까? 신세계를 돌아와서 마음이 편안하면 좋겠다.

09월 01일 추석이 다가왔다. 추석 절기인 환우들은 많이 바쁘다. 가족이 만약 조를 기다리는 환우들을 바라보면 환우들 마음속에 행복을 불러준다.

09월 01일 추석이 내일이다. 오늘은 당직 한 달을 끝내고 근무를 한다. 일이 있어서 시련병들을 옮기겠다. 환우들이 반갑게 맞이한다. 당직을 하지 않으면서 생활하는 환우들 일일이 손흔들며 인사로 인사를 한다.

10월 01일 추석도 지나고 이번 제법 아침처럼 온다. 가을 분위기가 온다. 우리 교향 일대에 제법 선곡제를 한다. 병원에 와서 외롭지 않게 한다. 새벽으로 처음 나가는 이름 지어진다. 기대된다.

10월 01일 시련의 마지막 밤. 내 마음은 다신...

신세계에서 온 자금침들을 돌아와서 매료된 것들 좀 볼까? 봅니다. 환우들과 지냈던 보조사실들 몇 달도 많은 고민과 반성할 때가 많았었다. 박 선욱이 본 원무과가 많은 고민과 반성할 때가 많았다. 감동적이며 가장 적극적인 생활로 지리산 병원, 신세계에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소망병동_최OO

자식 사랑 앞에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제
육신은 망들고 찢기고 병들고
가슴 깊은 곳엔 새까맣게 타버린 숯검댕이 되어
아름다운 입술을 가졌어도 입술을 담아버리신 당신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천륜이란 미명아래 당언하듯 받았을뿐
당신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알고올중독, 미성숙, 무능력, 무책임한 인행으로
세상물정도 모른 채
제 멋대로 살아온 날들
가족, 친구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자괴감, 자아상실감으로 술과 함께한 나날들.
당신의 고개하고 넓고 크신 사랑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현재 살아있음 자체만으로도
당신의 사랑을 다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맘속 깊이 뼈속 깊이 단주의 의지를 다지면서
한 잔 술의 유희에 못 이겨 소중한 인생의 가치를 저버리고
어리석음을 깨달아
위대한 힘, 정직, 겸손 봉사라는 의미를 되새겨보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최선을 다한 하루였다.. 반성해봅니다.
당신의 사랑에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리고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회망하면서...

다시, 또 시작이다

창밖에 고운 목소리로 지저귀는 새소리 단잠을 깨운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속에 묵묵히 병원 생활을 하고 있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한 바람이 불어오지만 그래도 낮 기온은 높아 짜증도 나기도 하는 무더운 늦여름 햇살을 등지고 에어컨 신세를 져야 했다. 그래도 더위 속에서도 밤 낮으로 수고와 정성을 다해 치료해 주시는 수간호사님과 간호사님 수고하시는 원장님, 부장님, 과장님, 보조사님, 우리를 위해 맛있는 식사를 해 주시는 영양사님을 생각하면 더위가 사라지듯 고마움을 느끼며 그릴수록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하며 다리가 낫기를 바라며, 보답할 수 있는 일은 이 감사함을 잊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꽃 동신의 병원 환우들의 웃음 띠는 병원, 마음까지 치료받는 병원이 되길 기원하며 기도하는 길이라 생각하였다.

지금도 지난날들을 돌이켜보면 무의미한 인생길을 걸어온 시간들이 원망스럽고 삶의 패배감과 낙오자가 된 과거 일들이 후회스럽다. 몇 일전의 잘못 행동한 일들을 쉽게 잊을 것이다. 외박일 이었다. 동생의 여름휴가를 맞아 가벼운 발걸음과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갔었다. 동생에게 간식비, 옷, 미술품, 공책 등을 사아하는데 가정생활을 하려면 많은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형 노릇 못해서 미안하다 라는 등의 말이 머리에서 빙빙 돌뿐 용기가 나지 않아 입 밖에 나지 않았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하는 생각도 나고, 울상도 찌푸려보았고 아휴.. 심정이 답답하였다.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어 술의 힘을 빌리고 말았다.(그 이유는 나에겐 내성적이고 말을 잘 않는 성격이라 술을 마시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전부터 술 중독에 빠져 다리도 못 걷고 죽을 고비까지 넘겨도 병원에 살다시피 한 나는 식구들 곁에만 시켰으니 술 마시는 것을 최고 싫어했다.) 어리석은 생각을 한 나는 옆 수퍼에서 소주2병을 목마른 사슴처럼 단번에 마셨다. 그제야 온순한 동생은 부당 없이 요구한 물품들을 아무 말 없이 사다 주었다. 미안함과 고마운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마음도 잠시뿐 인생을 포기한 듯 또 다시 소주병을 물 마시는 양 마시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어찌 사람으로서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에서와서 고품이 생각해보니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병원에 갈 시간이 다가오자 작은아버지께서 오셨다. 차를 타고 오면서 좋은 말씀을 하시며 충고를 해주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내려서 조금 걷다보니(동생은 술 마신지 전혀 모른 상태임) 어제 보단 못 걷는다고 이상히 여겼나 보다. 동생과 병동에 올라와 음주측정을 할 무렵 정신이 번쩍! 민청상태가 나왔다. 동생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듯이 어이가 없어 찬장만 멍하니 바라다보고 있을 뿐 나는 귀가 멍아도 있으면 숨고 싶었다. 잘못도 없는 음주 측정만 보좌사가 얼마나 알미웠는지.

나는 그 날부터 고민거리가 머리를 휘어잡았다. 간식비는 주고 갔을까?, 집을 팔면 어떻게 할까? 나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몇 일간은 이 생각 저 생각에 성경도 읽기 싫고 밥 생각도 없고, 움직이지도 싶어 누워만 있었다. 그런 생각에 얽매어 고통스러웠다.

아니다, 잊어버리자, 미래에 대한 설계를 꿈꾸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 이제는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다! 지금의 목표를 세우자! 행거를 놓고 간제! 뭐자! 진실한 삶을 살며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자며 굳은 마음을 가지자고 맹세하였다.

2007년 8월에... 전OO환우



환우작품전

나의 아픔이 세상의 수많은 아픔의 한 조각임을 깨닫고
나의 기쁨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산영복의 '차름차림' 중에서-



내 가족을
모시고 싶은....
자랑스러운병원

Newworld Hospital

신세계병원의 숨은 일꾼들

“아름다운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자원봉사자 명단

토요애매 인도목사

김중구 | 문영근 | 이경원 | 정희순 | 송태희 | 조병남
정성광 | 최남일 | 김찬홍 | 최준환 | 오진영 | 이봉기

요가

김철민 | 정예은 | 황진호 | 이진주 | 김진순 | 김수형
김요한 | 김태현

성경공부

오현두 목사

무용치료

최정임

풍선아트

이경미

미술치료

조찬화 | 김진성

이미용

소망 | 이영숙 | 김진숙 | 김혜정 | 황영자 | 송영숙
오경화 | 박영순 | 박순옥 | 이영희 | 정홍숙 | 홍효정

홍예영 | 지우달

협회 | 이성기 | 김성근 | 최홍길 | 문미숙 | 이수정
김류경 | 주지현 | 이혜숙 | 박유경 | 박학수 | 육기순

김정숙 | 최성숙 | 김태현 | 신금순 | 김금순 | 김성근
박주연 | 문영실 | 김현숙 | 소길재 | 이승기 | 박현화

이희관 | 이희영 | 우옥녀 | 강판순 | 박정임 | 강영희
김인숙 | 김남수 | 강남이 | 김정자 | 류경수 | 서광란

박영식 | 박은희 | 권혜경 | 이도희 | 엄미경 | 최경아
박춘정 | 김경민 | 송미경 | 김선주 | 유정숙 | 고은숙

이미란 | 이은정 | 강선미 | 강유숙 | 김인순 | 송미선
최덕실 | 김혜민 | 주영희 | 조정실 | 허 숙 | 강미숙

심영화 | 한정숙 | 장선영 | 장한구 | 양승열 | 이소현
심영화 | 전민지 | 육세록 | 장수영 | 김선옥 | 김지문

정은숙 | 한홍훈 | 유진희 | 박금숙 | 김성아 | 김수정
양자자 | 배금자 | 전선실 | 이은희 | 김재은 | 강선미

소길재 | 구보순 | 김수미 | 강성자 | 안경희 | 김현미
홍예영 | 김덕순 | 정혜경 | 박원희 | 윤순자 | 김광옥

생태리들

김형숙 | 윤정열 | 박인자 | 이영자 | 손수영 | 주남숙
오유경

웃음치료

최영명 | 황현주

전북대 산업정보

정환일 | 김대경 | 여기서 | 서경덕 | 신소라 | 김선미
최탁정 | 최종영 | 이미진 | 김현숙 | 송성원 | 최정규
박성진 | 정진수 | 김재희 | 최정민 | 정 열 | 이선영
황주영 | 박한수 | 김경수 | 김민규 | 김민애 | 조영두
고유리 | 김동욱 | 조재웅 | 안유현 | 방성배 | 최충현
이동화 | 박종원 | 강형식 | 임한웅 | 문연선 | 임대혁
박소희 | 조아현 | 김두이 | 정은기 | 박하연 | 봉세종
정지환 | 김인성

전북대 로타렉트

이후관 | 박종인 | 전세미 | 정용호 | 백연주 | 정성현
한이름 | 권순일 | 이창별 | 이종주 | 김종훈 | 박태종
김재별 | 노기영 | 주성환 | 김화연 | 박순은 | 주광재
이희선 | 이진실 | 정유진 | 김기민 | 노 철 | 김지혜
장세라 | 전은기 | 정선두 | 윤영희 | 황세준 | 황인식
신은종 | 김귀서 | 정승룡 | 형영관 | 신현정 | 이동현
김나리

바울교회 호스피스

배박종 | 최송자 | 박왕임 | 김춘자 | 방정자 | 심명자
유선자 | 윤순선 | 함금자 | 박성자 | 김선숙 | 이경자
노계숙

김제시 자원봉사단

심정숙 | 김미선 | 장숙자 | 정순자 | 노소영 | 김옥선
전영래 | 임순옥 | 고미숙 | 박선자 | 주인숙 | 남미옥
장선자

노력봉사

임성환 | 이예근 | 황희원 | 정혜라 | 유애경 | 조민경
윤성태 | 라준희 | 유형범 | 주도영 | 김다영 | 강다영
한수지 | 박세은 | 강예림 | 이주호 | 조두현 | 김덕현
신미선 | 안수현 | 김도영 | 김효정 | 임수진 | 최 한
이현아 | 이윤희 | 김미진 | 신은아 | 이민지 | 박지아
이경화 | 천효진 | 박미진 | 고영경 | 이수정 | 최경선

강효정 | 김은아 | 박가영 | 서미영 | 김동수 | 이미선
김진선 | 차정화 | 황금희 | 오지현 | 임세민 | 김선화
오진성 | 임진혁 | 김지은

※서신동학교, 금산고등학교, 2년 야고등학교, 김제대학교, 덕영고등학교, 천일고등학교, 천일고등학교, 천일고등학교, 천일고등학교

직장체험

손승지 | 제민우 | 정동훈 | 오용대 | 박민웅 | 임다정
임세진 | 김미진 | 박광준 | 오세호 | 정 건 | 이지선
전나영 | 정석원 | 김현진 | 김현지 | 이준선

전통 + 현대 운영위원회

김삼일 | 오순화 | 서광준 | 박상호 | 유영기

JR-Magic

신연숙 | 김태영 | 박홍순

119활동 참여단

김도기 | 신작미 | 조미정 | 신민복 | 이성훈 | 국주환
최윤범 | 백금희

손짓사랑회

정석원 | 김현진 | 김현지 | 이준선 | 오성식

김제시 자원봉사단

송정대 | 박현화 | 최정숙 | 정미자 | 박영숙 | 서금옥
김영자 | 조은숙 | 이지원 | 박원용 | 박종용 | 이명석
정경문 | 김가림 | 김재광

권사합창단

송일용 | 허선화 | 이정옥 | 강선숙 | 이광자 | 이준재
임정숙 | 최경희 | 박영숙 | 이성환 | 유홍순 | 이정자
이영애 | 송인실 | 임혜자 | 남홍순 | 류미순 | 이순자
하수남 | 김원자 | 김순자 | 황덕주 | 김정숙 | 송 영
재은희 | 김은숙 | 김경희 | 황선희 | 최정임 | 황찬우

찾아가는 리브트 음악봉사단

정 중 | 김하진 | 김 회 | 여정민 | 신진관 | 김 윤

은고를 민속악회

허영옥 | 고태원 | 배진숙 | 고양례 | 김선미

에버그린 밴드

전성경 | 박찬길 | 김용준 | 김수복 | 이영호 | 유갑수
안태웅 | 김자아 | 이종근 | 최광식 | 장진원 | 윤익숙

김영대 | 김수진 | 정민호

한미연 연예봉사단

박화실 | 홍석별 | 박현준 | 김 윤 | 유관옥 | 채선희
김영자 | 이종기 | 진대성 | 강용기 | 서필석 | 구신환
김동신 | 황종식 | 민홍기 | 강철식 | 김연민 | 오지현

색소폰 나라

조상기 | 임성준 | 양현철 | 유영정 | 주영평 | 이병근
이강현 | 정형근 | 박영근 | 전영주 | 최인숙 | 허병환
신현숙 | 김광민 | 문우창 | 김상선

전주 아르디언 협회

정준우 | 조원일 | 안순복 | 박태태 | 이철남 | 이현교
이영순 | 김관옥 | 송영숙 | 이화경 | 최상기 | 김영자
최춘례 | 소병태 | 박우자 | 이윤웅 | 이현주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백정복 | 이대문 | 양정현 | 이주희 | 고은영 | 임정대
이재경 | 문성하

※ 한해동안 묵묵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호, 명단에 누락된 분은 사회사업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06.515.8707



자원봉사자 만족도 조사결과

1.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분야

① 생활지원서비스, 교육, 오락, 간병, 이모용 등)	58
② 교차지원(학부모-이슈해결, 음악치료 등)	6
③ 정신지원(일일치, 인문학적 상담 등)	0
④ 여가선용(건강, 취미활동, 공연 등)	36

2. 자원봉사 활동 횟수 (한 달 기준)

① 매주	14
② 각주	37
③ 한 달에 한번	24
④ 격 달에 한번	16
⑤ 필요시마다	9

3. 자원봉사 활동 기간(본 병원에서의 자원봉사활동 기간)

① 3개월 미만	37
② 6개월 미만	19
③ 1년 미만	8
④ 1년 이상	36

4. 병원 직원들의 친절도

① 매우 만족	62
② 만 족	20
③ 보 통	14
④ 불 만	4
⑤ 매우 불만	0

5. 병원의 자원에 대한 만족도

① 매우 만족	47
② 만 족	30
③ 보 통	23
④ 불 만	0
⑤ 매우 불만	0

6. 환우들의 프로그램 참여의 적극성

① 매우 만족	38
② 만 족	30
③ 보 통	32
④ 불 만	0
⑤ 매우 불만	0

7. 프로그램 효율성 및 효과성

① 매우 만족	56
② 만 족	21
③ 보 통	23
④ 불 만	0
⑤ 매우 불만	0

8. 자원봉사 실시 전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① 매우 그렇다	30
② 그렇다	38
③ 보통이다	24
④ 아니다	8
⑤ 매우 아니다	0

9. 자원봉사 실시 후 편견도 변화유무

① 매우 그렇다	30
② 그렇다	45
③ 보통이다	14
④ 아니다	11
⑤ 매우 아니다	0



알음알음 후원회

투명하게 나눔을 함께하는 '알음알음 후원회' 가 되었습니다

후원자

김미숙, 권석준, 김대준, 김미화, 김백림, 김병기, 김연실, 김지영, 김한주, 김원준, 김형준, 문지연, 박은경, 박진희, 방민정, 유지연, 이정현, 이미숙, 임은희, 안재형, 장선자, 장영천, 정진경, 조광원, 조상연, 조선희, 조아라, 최소은, 최인남, 허영숙, 황지영, 김선미, 김재환, 김정희, 오상진, 이영애, 이우선, 이찬봉, 임석근, 채정래

월별 수익내역	월별 지출내역
1월 356,394	1월
2월 316,000	2월
3월 464,007	3월
4월 526,000	4월
5월 757,930	5월
6월 1,250,121	6월
7월 425,000	7월
8월 502,000	8월 140,000
9월 457,205	9월 60,000
10월 451,000	10월 60,000
11월 462,000	11월 684,410
12월 437,000	12월 500,000

후원운영회를 설립하여 8월부터 후원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수혜자를 더 발굴하여 아름다운 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음알음 후원회 조직도



후원안내

CMS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매월 일정한 날짜에 통칭에서 작성하신 금액 자동이체
비정기후원은 아래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농협 525132-56-006 038 알음알음회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후원신청서와 CMS 용지를 송부해드립니다.
정기후원의 해지를 원하시는 분은 후원담당자(사회사업실) : 545-67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63545-8707, sin8700@hanmail.net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1. 정신보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
2. 정기적이고 지속적인봉사활동 월 1회 이상 주 1회 이상 봉사활동이 가능한 분.
3. 특수 분야 전문 자격증을 소유하거나 애능 쪽에 특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
4. 학생자원봉사/가족봉사/단체봉사 가능합니다.

● 모집분야

1. 각 병동 프로그램 보조 진행
2. 환자 대상 위생관리 및 정서지원
3. 병원 내 노력봉사
4. 사회사업실 업무 보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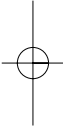
문의 및 상담 : 사회사업팀 / 김현준 / 063-545-8707

병원차량 운행 시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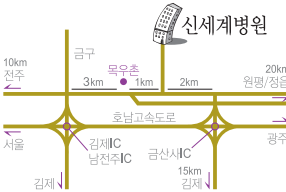
전 주										
	병원(출발)	금구	롯데APT(입차)	호사자구대	경리대(입차)	병원(도착)	호사구대(입차)	롯데APT(출차)	금구	병원(도착)
오전	07:00	⇒	⇒	⇒	07:25	07:45	07:47	08:05	08:05	08:10
	09:00	09:10	09:25	09:30	09:40	09:55	10:00	10:10	10:20	10:30
오	14:00	14:10					14:30		14:50	15:00
후	16:15	16:25	16:40	16:45						17:05
	17:30	17:40	17:55	18:00						18:30
	19:00	19:10	19:25	19:30	19:40	19:55				
							21:20		21:30	21:40
아	22:40	22:50	23:05	23:10						

김제(화요일 운행)										
	병원(출발)	금구	황산	김제(이거출발)	타마(상상환의원)	N 마트(노년)	봉 남(농협)	병원(도착)		
오전	10:30	10:40		11:00	11:05	11:10	11:25	11:30		
	12:30	12:40	12:50	13:00	13:05	13:10	13:25	13:30		

정읍(금요일 운행)										
	병원(출발)	원평타마	태안타마	정읍타마	태안타마	원평타마	병원(도착)			
오전	10:30	10:40	10:50	11:20	11:45	11:55	12:05			
	12:30	12:40	12:50	13:20			14:00			



노인·정신·알콜 전문병원



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301-14 (금구와 원평사이)
Tel : (063)545-8700
www.newworldhospital.com